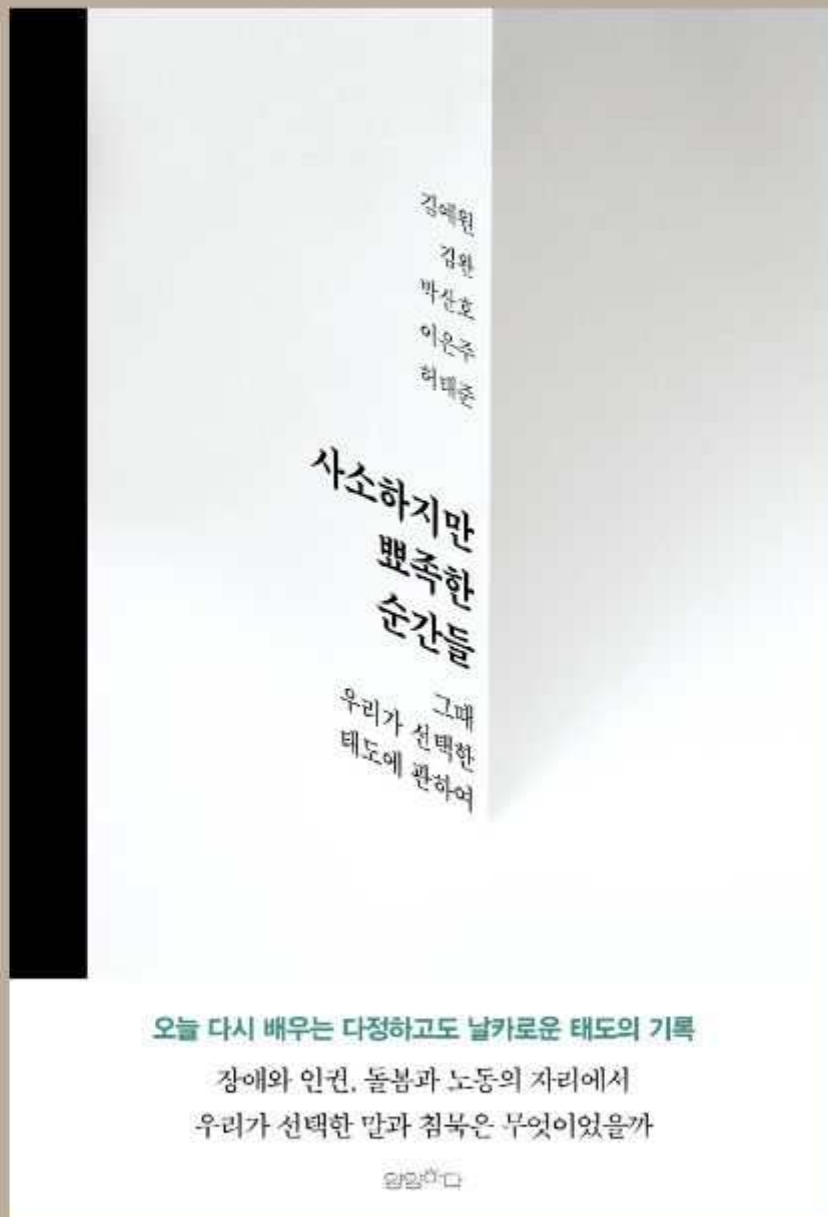




# 사소하지만 뾰족한 순간들

그때 우리가 선택한 태도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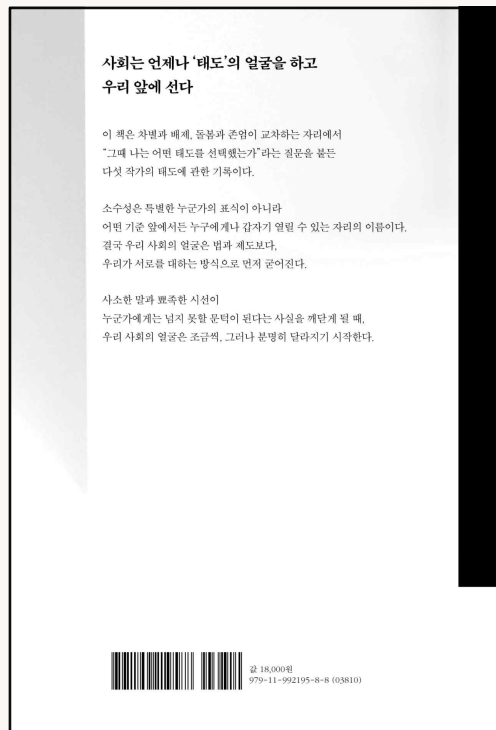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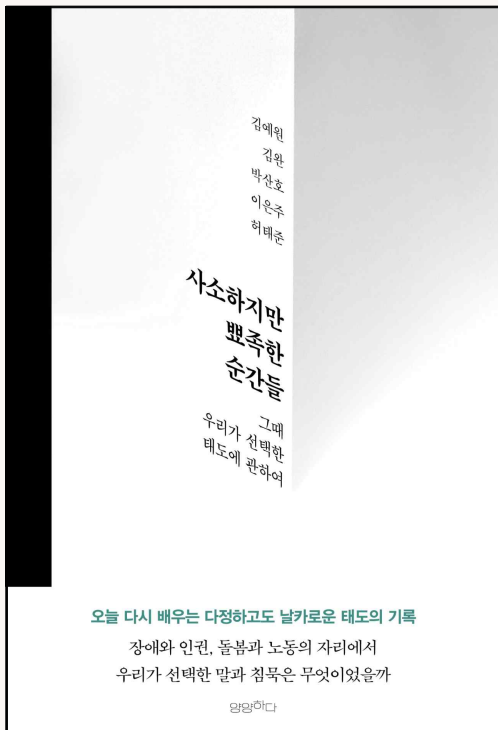


[활동 목차]

진행 차시	활동 내용	
1	표지가 건네는 질문	독서 전
2	책 소개 카드뉴스로 미리 만나는 이야기	독서 전
3	나는 ( )하고 ( )한 사람	독서 전, 중, 후
4	교환 독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읽기	독서 중
5	상황 속 선택: 나는 어떤 태도를 선택할까?	독서 후
6	삶의 태도 즉문즉답: 생각을 나누는 대화	독서 후
7	우리 사회의 '사소하지만 뾰족한 순간' 찾기	독서 후
8	오늘, 나부터 시작하는 다짐	독서 후
9	우리가 꿈꾸는 사회: 선언문과 실천 포스터 만들기	독서 후

여러분이 읽게 될 『사소하지만 뽀족한 순간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책을 읽기 전에 먼저 표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책 속에 담긴 단서를 찾아봅시다.

책의 표지에는 제목, 그림, 색깔, 인물의 모습 등 책의 내용과 주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저자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표지를 꼼꼼히 관찰하며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자유롭게 생각해 보고, 떠오르는 생각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봅시다.



①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제목을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 봅시다.


② 이 책의 저자는 몇 명인가요? 책날개의 저자 소개를 읽고, 저자들은 어떤 경험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인지 정리해 봅시다.

--

③ 제목 속 '사소하지만 뾰족한 순간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뜻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④ 책 띠지에 적힌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장애와 인권, 돌봄과 노동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한 말과 침묵은 무엇이었을까?”


- 이 질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말하거나 침묵했던 경험이 있나요?
- 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사소하지만 뾰족한 순간들』은 다섯 명의 저자가 살아가며 마주했던 순간들과 그 속에서 느낀 감정, 그리고 선택한 태도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들은 장애와 인권, 노동과 돌봄, 관계와 존중 등 다양한 주제를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카드뉴스를 살펴보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만나 봅시다. 각 저자의 소개글을 읽고 가장 궁금하거나 공감되는 이야기를 선택해 보세요. 또한 그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와 책을 읽으며 알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앞으로의 독서를 준비해 봅시다.

무심코 지나쳐온 자리마다,  
어떤 태도가 살고 있었다.


**사소하지만 뾰족한 순간들**  
그때 우리가 선택한 태도에 관하여



“당신은 오늘,  
어떤 태도로 타인을 마주했나요?”

우리를 버티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는 것은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에 더 가깝다.

그 작고 일상적인 틈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시작선 밖으로 밀려난다.



무심코 던지는 말투와 시선에서  
누군가는 들어가지 못하는 문 앞에서  
누군가의 삶이 단지 몇 마디의 병명으로 단정되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선택이 선의라는 이름으로 제거되는 장면에서

나는 그때 어떤 태도를 선택했는가

무엇이 되었든, 나의 세계는 한 치 앞을 짐작할 수 없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 안에 있으면, 비로 대신 집중하고, 절투 대신  
평온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일을 오래  
불붙고 정성스럽게 가꿔나간다면 충분하다.

박산호(번역가이자 소설가)


돌봄의 시간은 느리고, 회복의 시간은 더디며, 사람의  
마음은 쉽게 따라오지 않는다. 그 속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계속 지치게 한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승리를 뜻하지 않는다.  
어떤 날은 단지 "나도"라는 한마디를 듣는 일, 그 한마디를  
불붙고 하루를 건너는 일일지도 모른다.

이은주(번역가이자 작가, 요양보호사)

“당신은 오늘,  
어떤 태도로 타인을 마주했나요?”

우리를 버티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는 것은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에 더 가깝다.

그 작고 일상적인 틈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시작선 밖으로 밀려난다.



무심코 던지는 말투와 시선에서  
누군가는 들어가지 못하는 문 앞에서  
누군가의 삶이 단지 몇 마디의 병명으로 단정되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선택이 선의라는 이름으로 제거되는 장면에서

나는 그때 어떤 태도를 선택했는가

“위험할 수 있다, 감당하기 어렵다, 불행해질 수 있다.”  
그 말들은 대개 선의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선의가 어더까지 타인의 삶을  
대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어떤 선택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남은 삶의 터전은 얼마나 좁아질까.


김예원(공익변호사이자 인권활동가, 사회복지사)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는 상처받은 세월과 슬픔을 조용히  
이겨내려는 순수하고 절박한 영혼을 가진 인간이 있다.  
나와 당신, 우리의 하등 다름 바 없는 소중하고  
사람스러운 존재.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선무른 진단과 낙인, 괴물 관점이 아니라 존중이다.

김완(특수정소사업자이자 작가)

말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각자의 운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그냥 읽고 있다는 말 뒤에도 지마라의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묻지 않기로 한 마음을 정약 삼아 열은 천밀감에  
불을 지피면, 침묵은 다양한 표정과 빛깔로 일렁인다는 것을.

허태준(작가)



결국 사회는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아주 사소한 순간의 태도로 만들어진다.  
이제 우리는 그 순간을 다시 보고,  
조금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태도를 선택해 왔는가.  
그리고 이제,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① 가장 읽어 보고 싶은 이야기를 선택해 보세요.

- 김예원 작가의 이야기
- 김완 작가의 이야기
- 박산호 작가의 이야기
- 이은주 작가의 이야기
- 허태준 작가의 이야기

② (작가의 이름: \_\_\_\_\_)의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③ 내가 선택한 저자는 어떤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사소하지만 뾰족한 순간들』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일상의 순간들과 그 순간에 선택한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아무렇지 않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용기를 주는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책을 읽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형용사를 활용하여 표현해 보고, 책을 읽으며 그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봅시다.

### 1.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독서 전 활동)

① 나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형용사 두 가지를 적어 봅시다.

' ( )하고 ( )한 (내 이름: ) '
-------------------------

② 위에서 선택한 두 개의 형용사가 나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한 이유를 적어 봅시다.


### 2.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 (독서 전 활동)

① 다음 중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에 √표 해 봅시다. (여러 개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배려하는	<input type="checkbox"/> 다정한
<input type="checkbox"/> 용기 있는	<input type="checkbox"/> 공정한
<input type="checkbox"/> 책임감 있는	<input type="checkbox"/> 존중하는
<input type="checkbox"/> 솔직한	<input type="checkbox"/> 포기하지 않는
<input type="checkbox"/> 성실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② 위에서 선택한 태도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봅시다.


**3. 책을 읽으며 생각해 보기 (독서 중 제시)**

『사소하지만 뽀족한 순간들』의 저자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한 순간들을 통해 "나는 그때 어떤 태도를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읽어 봅시다. 여러분도 책을 읽으며 다음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①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② 그 이야기 속 인물은 어떤 태도를 보여 주었나요?


③ 나라면 이야기 속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④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4. 책을 읽은 후의 나 (독서 후 활동)**

① 책을 모두 읽은 뒤, 처음 적었던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시다.

' (                             )하고 (                             )한 (내 이름:                             ) '
---

② 처음 적었던 형용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나요? 아니면 바꾸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4차시

## 교환 독서 :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읽기

『사소하지만 뽀족한 순간들』에는 다섯 명의 저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한 이야기와 그 순간에 선택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책을 읽더라도 어떤 이야기에 공감하는지, 무엇이 인상 깊게 다가오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친구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책 속 인물들의 경험과 태도를 더욱 깊이 이해해 봅시다.

### 1. 내가 선택한 이야기

내가 선택한 글 제목 (책의 쪽수)	
이 글을 선택한 이유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	
이 문장이 인상 깊었던 이유	

### 2. 친구와 교환 독서

친구가 선택한 글 제목 (책의 쪽수)	
친구가 이 글을 선택한 이유	
친구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소개한 문장	
친구의 생각을 들은 후 공감한 점, 새롭게 생각하게 된 점, 또는 나의 의견	

### 3. 마음속에 담아가고 싶은 문장

독서는 책을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친구와 독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문장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하고, 같은 문장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만난 문장 중 앞으로 기억하고 싶거나, 나의 생각과 태도를 돌아보게 한 문장 하나를 선택해 봅시다.

#### ① 내가 마음에 담고 싶은 문장


#### ② 이 문장이 특히 마음에 남은 이유를 적어 봅시다.


#### ③ 이 문장이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나요? 실천하고 싶은 태도를 중심으로 적어 봅시다.


『사소하지만 뽀족한 순간들』의 저자들은 일상 속 다양한 순간을 마주하며 자신만의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기도 하고, 때로는 망설이기도 하며, 어떤 순간에는 용기를 내어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의 이유 또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여러 상황을 살펴보며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 보고, 그 선택 뒤에 담긴 태도는 무엇인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을 이해해 봅시다.

1. 아래 '상황' 속에서 '나라면'?

선생님을 위한 지도 Tip

상황 카드 활동은 옳고 그른 답을 찾는 활동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세요.

순번	상황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1	점심시간입니다. 급식실 한쪽 구석에서 같은 반 친구가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말을 걸지 않습니다. 어느새 모두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연히 그 친구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은 이미 다른 자리에 앉아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혼자 있는 친구 옆에 가서 말을 건네며 함께 밥을 먹는다. <input type="checkbox"/> 그냥 지나친 뒤, 친구들과 함께 앉는다. <input type="checkbox"/> 말을 걸고 싶지만 망설인다. <input type="checkbox"/>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본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2	하루 중 가장 바쁜, 아침 등교 시간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여러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정원이 거의 차 있어 한 사람만 더 탈 수 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천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내가 먼저 탄다. <input type="checkbox"/> 휠체어를 탄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한다.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핀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3	시험이 끝난 날, 반 단체 채팅방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같은 반 친구의 사진을 올리며 외모를 놀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고, 다른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진 속 친구는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팅창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분위기는 마치 장난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그만하자고 말한다. <input type="checkbox"/> 개인 메시지로 친구에게 괜찮은지 물어본다. <input type="checkbox"/>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지켜본다. <input type="checkbox"/> 다른 주제로 대화를 바꾸어 본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예시)

우리 모두가 선정한 태도	우리가 이 태도를 선정한 이유	이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한 문장
존중	사람마다 생각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우리 모두가 선정한 태도	우리가 이 태도를 선정한 이유	이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한 문장

『사소하지만 뽀족한 순간들』의 저자들은 일상 속 다양한 순간을 마주하며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순간 어떤 태도를 선택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카드 속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돌아보고, 친구들의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들어봅시다.

\* 즉문즉답 카드는 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담당 선생님께 보내드립니다(yyhdbooks@gmail.com)

활동 준비물	삶의 태도에 관한 즉문즉답 카드와 공감 토큰(스티커, 포스트잇 등 자유롭게 선택)
활동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4~6명이 한 모둠을 이룹니다.</li> <li>② 각자 공감 토큰 3개를 받습니다.</li> <li>③ 순서대로 카드 한 장을 뽑아 질문을 읽고 답합니다.</li> <li>④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합니다.</li> <li>⑤ 답변을 들은 친구들은 가장 공감되거나 인상 깊었던 사람에게 공감 토큰 1개를 줄 수 있습니다.</li> <li>⑥ 모든 학생이 2~3번씩 참여한 후 활동을 마무리합니다.</li> </ol>
특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스권 1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패스"를 선언하고 다른 카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li> <li>● 천사 소환권 1회 다른 친구에게 대신 답변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li> <li>● 공감 토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에게 토큰을 줄 수 없습니다.</li> <li>- 한 사람에게 여러 개를 줄 수 있습니다.</li> <li>- 왜 공감했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하며 전달합니다.</li> </ul> </li> </ul> <p>※ 공감 토큰 전달할 때의 공감의 말 예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비슷한 경험이 떠올랐어요."  "평소 생각해 보지 못한 관점이라 인상 깊었어요."</p>

● 마무리 활동: 오늘의 공감왕

모둠별로 공감 토큰을 가장 많이 받은 학생 1명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학생은 자신의 답변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이야기를 학급 친구들에게 소개합니다. 이어서 모둠원들은 그 이야기에 공감한 이유와 인상 깊었던 점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이를 통해 서로의 다양한 생각과 태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 모둠의 공감왕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이야기	질문	
	답변	
모둠원들의 공감 포인트		

『사소하지만 뾰족한 순간들』은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어려움이 되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당연하게 여겼던 환경, 특정 사람들을 향한 편견과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뾰족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신문 기사 속에서 우리 사회의 '사소하지만 뾰족한 순간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사를 읽으며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변화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 1. 신문 기사 읽기

### ① 함께 읽기

신문 기사의 제목	우리, 코미디도 잘 할 수 있어요... 무장애 공연 '무대'를 넓히다	
발행일자	2026년 5월 18일	
신문사	동아일보	
기자의 이름	김민	

국립극장 무장애 연극 첫 코미디 '당신 좋을 대로' 사회적 약자 관람 장벽 줄인 공연... 진지한 주제-무거운 정극서 탈피 셰익스피어 희극 유쾌한 연출로... "모든 인간은 비극과 희극 다 가져" 장애-비장애 7명 "놀이하듯 연기"

시각장애인인 배우 이성수는 국립극장 연극 '당신 좋을 대로'에 합류한 뒤 작심하고 제작진에 이렇게 말했다.

"저, 소외시키지 말아 주세요!"

2015년 데뷔한 이 배우는 그간 여러 편의 무장애 공연 작품에 출연했지만, 시각장애는 특히 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배제된다는 느낌을 받는 일이 많았다. 때문에 이번엔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런 일을 없애자'는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14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 뜰아래연습장에서 리허설 직후 만난 이 배우는 "돌아보니 관한 '작심 발언'으로 초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제작진에도 부담을 드린 것 같다"며 "다행히 '당신 좋을 대로'는 유쾌한 작품이라 서로 즐겁게 놀이하듯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유쾌한 작품"이란 이 배우의 말처럼 '당신 좋을 대로'는 국립극장 기획 '무장애 공연(Barrier-free)' 최초의 코미디 작품이다. 무장애 공연이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줄인 공연을 일컫는다. 수 년 전부터 무장애 공연을 선보인 국립극장은 그간 장애인을 중심에 둔 진지한 주제나 공익적 담론의 정극을 선보여 왔다. '당신 좋을 대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 '졸으실 대로'(As You Like it)가 원작이다.

박지혜 연출은 “그동안 배리어 프리 공연에선 비극이 비교적 많았는데, 그런 작품은 연습실 분위기도 어둡고 무겁다”며 “모든 인간은 비극과 희극을 모두 갖고 있는데, 그간 무장애 공연에서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희극적인 면을 더 비춰 보고 싶었다”고 했다.

“희극은 이야기의 방향성이나 몸의 에너지가 다릅니다. 희극을 할 땐 어떻게 하면 상대가 웃을까 고민하고, 나의 어떤 점이 유쾌하고 재밌는지 찾아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훨씬 마음이 열리게 돼요. 동물적이고 즉흥적인 감각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원작은 권력 다툼으로 추방된 공작의 딸 로잘린드가 남장한 채 아르덴 숲으로 도망친 뒤 다양한 인물과 만나고, 이들이 사랑에 빠지고 변화하는 과정을 그려낸다. 국립극장 버전은 여기에 ‘유랑극단’이란 설정을 더했다. 원작에는 없는 해설사가 등장해 극을 이끌어간다.

‘당신 좋을 대로’는 장애·비장애 배우 7명이 등장인물 20여 명을 멀티 배역으로 소화한다. 배역이 바뀔 때마다 변장을 하고 빠르게 역할을 전환해 재치 있는 장면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형의 억압에서 벗어나 로잘린드를 향한 사랑을 지켜내는 올랜도 역은 장애인 최초로 2023년 백상예술대상 연극 부문 연기상을 받은 배우 하지성이, 남장을 한 채로 사랑을 시험하며 인물들을 화해로 이끄는 로잘린드 역은 코다(청각 장애 부모를 둔 청인 자녀) 배우 장혜진이 맡았다. 이 밖에 김범진, 안창현, 임지윤, 지혜연이 출연한다.

하지성은 “이 작품의 주제인 사랑에는 연인뿐 아니라 형제, 이웃 등 다양한 관계의 사랑이 담겨 있다”며 “올랜도를 연기하며 만남 자체가 출발이고 사랑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을 통해 자기의 취약한 면을 보완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간 작품을 만나면 그걸 해석하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 그 목표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대사를 해왔던 것 같아요. 박 연출의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스타일을 보면서, 제게 부족한 부분이라는 걸 알았죠. 배우로서 욕심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없던 것을 배우려니 어렵지만, 새롭게 배운 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28~31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② 신문 기사 직접 선택하여 읽기

\* 활동 안내: 신문 기사의 주제는 제시된 주제 외에도 장애인 이동권, 배리어 프리, 노인 디지털 소외 및 키오스크 사용의 어려움, 혐오 표현과 온라인 댓글 문화, 이주민 차별과 다문화 사회 등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신문 기사를 선택하여 읽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아래의 활동지를 제시해주세요.

신문 기사의 제목	
발행일자	
신문사	

기자의 이름	
신문 기사 요약하기	

## 2. 기사 속 '사소하지만 뽀족한 순간' 찾기

① 기사 속에서 어려움이나 차별, 불편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시) 시각장애인 배우 이성수입니다. 그는 여러 무장애 공연에 참여했지만, 시각장애로 인해 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배제된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② 신문 기사 속 인물에게 '뽀족한 순간'이 된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예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이 구성원으로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된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③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한 원인이나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시) 장애인의 입장과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 3. 사회가 취하는 태도 찾기

기사 속 인물이나 집단을 향해 우리 사회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기사 속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관람 장벽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li> <li>•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공연을 기획하였다.</li> <li>• 수어 통역사를 무대 위 배우처럼 함께 참여시켜 공연을 만들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이 소통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환경이 존재한다.</li> <li>• 장애인의 다양한 능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li> <li>• 사회 곳곳에 장애인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물리적·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li> </ul>

### 4. 변화 만들기

① 이러한 '사소하지만 뾰족한 순간'을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예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내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예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먼저 상대의 의견을 묻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③ 이 기사를 읽고 난 뒤, 새롭게 생각하게 된 점이나 앞으로 실천하고 싶은 태도를 적어 봅시다.


(예시)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시설이나 제도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를 특별하게 대하기보다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사소하지만 뾰족한 순간들』을 읽으며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어려움이 되는 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우리 사회가 보여 주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사회의 모습을 함께 그려 봅시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태도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 선언문'을 작성해 봅시다.

### 1. 우리 모두가 만들고 싶은 사회

『사소하지만 뾰족한 순간들』을 읽으며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태도를 만나 보았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거나 어려움이 되는 순간들을 살펴보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떠오르는 단어와 문장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 2. 선언문 작성하기

모둠 토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의 모습을 선언문으로 작성해 봅시다.

“우리는 \_\_\_\_\_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예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래의 세 가지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 ①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저마다의 이야기와 삶을 가진 존재로 존중하겠습니다.
- ② 친구가 자신의 생각이나 고민을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겠습니다.
- ③ 혼자 있는 친구, 도움이 필요한 친구, 소외된 친구를 보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고 함께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 3. 실천 포스터 만들기

모둠에서 작성한 선언문을 바탕으로 실천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 \* 포스터 제작 팁

좋은 포스터는 그림을 잘 그리는 포스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하고 싶은 가치와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포스터입니다.

- ✓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해 보세요.
- ✓ 존중, 공감, 배려, 연대와 같은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그림이나 이미지를 활용해 보세요.
- ✓ '존중하자'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습니다'처럼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담아 보세요.
- ✓ 색상과 글씨 크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구성해 보세요.